

## 韓國의 敘事民謠와 英美의 포크벨러드에 나타난 主題의 比較分析

韓 圭 萬

영어영문학과

(1987. 9. 30 접수)

### < 要 約 >

이 論文의 目的은 韓國의 서사민요와 英美의 포크 벨러드의 공통점 특히 공통적인 주제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제 I 장은 本 研究의 意義와 目的 그리고 양자의 研究 現況을 밝혔다. 제 II 장은 양 장르의 주제분류와 등장인물의 對比를 하였으며, 제 III 은 양자의 敘事장르로서의 공통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제 IV 장은 社會的, 文學的 觀點에서 조동일이 수집한 서사민요를 19개 하위유형을 나누어 그 의미를 추적하였으며, 제 V 장에서는 英美文化圈에서 가장 인기있다고 하는 7개의 벨러드를 같은 관점에서 논하였다.

本 研究의 結論은 다음과 같다. :

1. 韓國의 학자들은 서사민요를 “農村女性”의 “길쌈 노동요”라고 단정짓고 있으나 그 概念이 매우 狹義的이다. 서사민요의 범주에는 진정한 서사 變愛謠뿐만 아니라 超自然的, 宗教的인 敘事巫歌 및 歷史的인 背景을 갖는 謠와 諷笑謠의 一部가 포함될 수 있다. 男性謠 中에서 樵夫謠, 어부요, 牧童謠와 그외에도 說話謠, 歌辭의 民謠 中에서 서사민요를 발견할 수 있다.
2. 外觀上의 랜더지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 장르는 寫實主義的인 詩로 規定할 수 있다.
3. 주제해석의 열쇠는 걸음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의 결말에 있지 않고 唱者 및 聽者로서의 民의 態度이다. T. Coffin은 이것을 民의 “情緒的 核心”이라고 하였다.
4. 社會的인 觀點에서 보면 兩 장르의 共通主題는 封建的·家父長的 道德律에 대한 民의 抗拒이다.
5. 文學的인 觀點에서 보면, 兩者의 共通主題는 悲劇的 現實을 극복하고 人間性의 解放을 성취하려는 民의 意志이다.
6. 그 주제는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分類될 수 있다 : 觀念的인 生活方式이 아닌 實用的이고 經驗的인 生活方式의 表明, 黃金萬能主義가 아닌 人道的인 價値評價, 規制와 抑壓이 아닌 自由와 平等 精神의 高揚, 잔인무도한 복수와 보복이 아닌 寬容과 容恕, 性的인 방종이 아닌 자유롭고 긴장한 性 等.

本 論文은 1986年度 文教部 學術研究 造成費의 支援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7. 一般的인 情緒는 비관적인 자포자기가 아니라 낙관적인 발랄함이며, 절망적인 默從이 아니라 희망에 찬 實踐主義라고 본다.

---

## A Study of Themes in Korean Narrative Folk Songs and Anglo-American Ballads

Han, Kyu-Man

Dept. of English Lang & Liter

(Received September. 30, 1987)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find out the common themes of Korean and Anglo-American narrative folk songs. Chapter I deals with significance and the aims of the study, and its developments in Korea, the U. K. and the U. S. A. Chapter II surveys the classifications and the characters of the two genres. Chapter III examine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two as narrative songs. Chapter IV investigates, from the social and literary points of view, the meanings of nineteen subtypes of sosaminyo(Korean narrative folk songs), collected by Cho, Dong-II. Chapter V examines the meanings of the most popular seven ballad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Korean scholars define sosaminyo as “a weaving song” of “women in the rural villages.” The definition is very strict. Categories of sosaminyo may be extended, beyond true love songs, to part of the supernatural and religious shaman’s narratives and part of the historical predictions and satires of the folk. And sosaminyo could include some of masculine work songs—those of woodcutters, seamen and herdboys—as well as some of legendary narratives and odes.

2. Depite the seemingly fantastical elements, both genres may be defined as realistic poetry.

3. The ke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mes is not the literal meanings of the story but the singer’s and listener’s attitudes toward the story. T. Coffin, called it “emotional core.”

4.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the common theme of the two genres is the protest against the feudal and patriarchal moralities.

5. From the literary point of view, it is the will to the overcoming of tragic realities and to the liberation of humanity.

6. The themes are classified as follows: not idealistic ways of life but practical and experiential ones, not mammonish evaluation but humanitarian one, not brutal revenge but

forgiveness, and sexual licentiousness but sexual freedom.

7. The dominant emotions and feelings in both narrative folk songs are not pessimistic resignation but optimistic liveliness, and not desperate passivism but hopeful activism.

## I. 序 論

### 1. 研究의 意義 및 現況

文學作品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에 대개는 당해작품이 지역적·민족적 特殊性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류전체의 普遍性을 함께 지닌다. 오랫동안 전승되어 남아있는 민요들도 이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민요는 특정한 소수에 의해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집단에 속하는 多數에 의하여 불리운다. 민요가 多數의 弱者들의 노래이면서도 강한 호소력과 지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 기원 및 전승이 공동체에 근거를 둔 普遍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민요의 보편성이 타문화권사이의 민요의 대비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한국의 서사민요와 영미의 벨러드는 매우 유사한 여러 특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양자가 구비문학 가운데에서도 내용, 이야기의 전개방식, 언어면에서 文學的 價値가 매우 뛰어난 장르이다. 이 對比研究는 첫째, 文化的으로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교류를 촉진하게 하며, 둘째, 현대시의 宗家로서 민요의 본모습을 찾아내고 문학의 기원 및 여러 특징을 규정하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또한 양자가 다수 대중의 사고와 정서의 솔직한 表現物로서 당대의 생활상과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민요연구의 의의에 대해서는 임동권의 「韓國民謠研究」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文學的인 면에서 민요연구는 궁극적으로 詩歌發生論, 藝術祈願論에 기여한다. 또한 민요의 제작자가 민족집단이므로 民族文化의 主流를 민요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민요가 선조 대대로 전승되어온 민족 공동 心棼의 표현이란 점에서 민요를 통하여 민족문화유산을 계승·고양시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今日에 이르는 역사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셋째, 민요의 소유자인 서민들의 생활정서가 민요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민요연구는 과거의 서민생활상을 파악하게 해준다. 넷째, 향토의 지리적·풍토적 자연환경에 따라 고유한 音律 및 情緒가 민요에 나타나 있어 각 국민의 民族性과 鄉土性을 발견할 수 있다.<sup>1)</sup> 위에 적은 네가지 민요연구의 의의는 本論文의 의의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方法論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민요연구의 방법으로는 音樂的·民俗學的·文學的 方法이 있는 바 본 논문은 민요의 가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文學的 方法을 택하였다. 민요학이 여타 학문인 종교학, 집단심리학, 사회학, 역사지리학, 실화학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학문적 분석은 가능한 한 절제하였다. 한편 資料의 활용에 있어서 현지조사방법과 문헌이용방법 중에서 여건상 후자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민요연구의 자료로는 민요채집부문과 연구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民謠採集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중에 本格的인 研究成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선 韓國의 민요채집은 신라, 고려, 이조 등의 역대 왕조하에서 행하여졌으나, 민요를 學

1) 임동권, 「韓國民謠研究」(서울 : 이우출판사, 1980), pp. 9~11.

間的으로 採集 및 研究하려는 움직임은 1894년 甲午改革 以後에 일어났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민요학을 세 시기로 구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는 상고시대로부터 갑오개혁 때까지이다. 신라시대의 민요채집이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三國遺事」, 「三代目」 등에 상당수가 수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전보다 성과있는 민요채집이 없었다. 그러나 이조시대의 민요채집은 꽤 활발하여 世宗代에는 직접 왕이 민요채집策을 세운 일도 있다. 민요에 관심을 표명한 왕으로는 世祖, 中宗, 高宗 등이 있으며 이조 後半期에는 歌謠편찬 사업이 활발하여 많은 歌集속에 일부이나마 민요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李朝의 古代小說 속에 민요가 상당히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 둘째 시기는 甲午改革(1894)에서 8.15해방(1945)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자각과 함께 여러 民謠集이 出版되고 학회, 기관, 개인에 의해 現地調査에 의한 채집이 수행되었다. 특히 金素雲은 1933년 「朝鮮口傳民謠集」를 내놓았고, 高橋亨은 채집 및 연구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文學人, 音樂人이 민요에 의욕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채집 및 연구방법이 산만하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셋째 시기는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민족의 해방과 함께 민요가 일약 民族文學의 정수로서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文學的 민요채집은 任東權, 國語國文學會 등이 행하였고, 音樂的 채집은 金聖泰, 國立國樂院 등이 행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조직적으로 민요채집 및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sup>2)</sup>

이에 비해 英美의 민요학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에 따르면 영국의 민요는 중세후기까지도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왔으나,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일어난 浪漫主義 時代精神에 힘입어 민요채집이 매우 활발하여졌다.<sup>3)</sup> 초기의 민요집으로는 1765년에 발행된 Thomas Percy의 *Reliques of Ancient English Poetry*와 Sir Walter Scott의 *Minstrelsy of the Scottish Border*가 있다. 이 뒤를 이어 Lord Byron, W. Wordsworth, Samuel T. Coleridge 등의 낭만주의 작가들이 민요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1843년에는 영국민요의 부흥의 기원이 될 John Broadwood 목사의 16편의 민요가 출판되었고, 1877년과 1895년 사이에는 민요선집이 무려 10여개나 출간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Francis James Child는 대학교수로서 지금까지도 민요연구의 기본자료로 손꼽히는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를 총 5권으로 완성하였다. 이 안에는 약 1,000개의 벨러드가 305개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sup>4)</sup>

Child의 민요채집 이후에는 영국의 民謠學會가 1898년 創立되었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민요연구가 활발해졌다. 회원들의 주된 관심은 樂譜의 채록에 있었으나 Lucy E. Broadwood와 Anne G. Gilchrist 등의 歌詞 中心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 학회는 1899년부터 1931년까지 *Journal of the Folk-Song Society*를 발행하였고 1932년에는 *Journal of the English Folk Dance and Song Society*로 확대 개편하여 1964년까지 발행을 계속하였다. 이 잡지는 1965년 *Folk Music Journal*로 개명되었다. 20세기의 중요 選集者로서 Cecil J. Sharp와 Bertrand Harris Bronson을 들 수 있는데 Bronson은 Child의 가사선집에 樂譜를 추가하여

2) *Ibid.*, pp. 53~91.

3) Alex Preminger et al(eds.),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4), p. 284.

4) D. K. Wilgus, *Anglo-American Folksong Scholarship Since 1898* (New Brunswick: Rutgers Univ. Press, 1959), pp. 123~143.

*The Traditional Tunes of the Child Ballads with their Texts according to the Extant Records of Great Britain and America* 를 1959년에서 1972년에 걸쳐 완간하였다. 한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쪽의 민요채집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C. J. Sharp의 *English Folk Songs from the Appalachians* (1932) 와 V. Randolph의 *Ozark Folksongs* (1946~50)가 발간되었으며 J. and A. Lomax는 *American Ballads and Folk Songs*를 1934년에 출판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고, 1960년에는 A. Lomax가 *The Folk Songs of North America*를 내놓았다. 이러한 민요채집 활동과 더불어 수많은 민요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1888년 창립된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의 *Journal of American Folklore*가 그들의 중요한 연구활동 무대가 되었다.<sup>5)</sup>

위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민요채집 및 연구의 전반 활동에 있어서 韓國은 英美에 비하여 時期的으로나 質과 量의 面에서 상당히 뒤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서사민요와 벨러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韓國의 서사민요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서사민요는 그 장르적 독립성마저 확연히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가 1970년 趙東一의 「敘事民謠研究」에서 장르상의 문제점이 거론되었고 氏는 1983년에 서사민요 중에서 비극적 서사민요 뿐 아니라 喜劇의 서사민요도 존재함도 논하였다. 이에 비해 영미의 벨러드는 민요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양식임이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문학적 연구만도 상당한 양에 이른다. 이와같이 영미의 벨러드에 관한 저서가 수십권에 달하는 반면 韓國에서는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가 유일한 저서이다. 채집된 자료면에서도 그 양의 차이는 엄청나다. 1882년에서 1898년 사이에 만들어진 Child의 選集에는 약 1,000개의 벨러드가 305개 類型으로 分類되어 있음에 비해 1970년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자료편에는 총 173편의 서사민요가 14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피천득, 심명호의 비교연구의 자료편을 보면 서사민요의 범위를 넓게 잡아 총 78편을 약 45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피·심 양氏는 공동으로 영미의 포크 벨러드와 韓國의 서사민요를 비교하는데 매우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시도를 한 바 있다. 이는 비교분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귀중한 연구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研究의 方向 및 目的

서사민요와 벨러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 개념의 상위개념인 民謠와 folk-song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자가 民에 의해 共同製作되고, 民을 위해 存在하며, 民에 의해 享有되어온 口碑律文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인 공통점을 찾는다면 民謠와 folk-song의 양 개념은 比較文學의 立場에서 동일하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양 개념의 內包를 살펴보다도 분명하다. 鄭東華는 複合的 樣式에 의해 민요의 개념을 설정하였는 바, 그 속에는 순수민요로서 勞動謠, 情變謠, 輓歌, 成造歌, 打令이 포함되며, 童謠, 巫歌, 原始歌謠 및 俗歌가 포함되어 있다.<sup>6)</sup> 한편 PEPP는 folk-song의 종류로서 勞動謠, 抒情謠, 漁夫歌, 敘事民謠, 聖歌, 자장가, 유희요, 祝歌 및 무용요를 들고 있다.<sup>7)</sup> 양자를 비교해 보면 그 내포된 내용이 文化的 相異에서 오는 일부를 제외하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Maud Karpeles, *An Introduction to English Folk Song*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p. 108~114.

6)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서울 : 일조각, 1981), p. 14.

7) Alex Preminger et al(eds.), *op. cit.*, p. 283.

그런데 이러한 內包중에서 서사민요와 발러드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敘事장르가 抒情장르에 비해 비교적 音樂的 制限을 덜 받고 그 類型이 분명히 두드러지며, 둘째, 서사요가 세계적으로 누구나 口演할 수 있다는 普遍的인 장르이며, 셋째, 서사민요는 형식적으로 정제된 律文이기 때문에 민담과 같은 산문장르보다 形式分析에서 용이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서사민요 또는 이의 외국 유사장르와의 對比研究가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조동일은 한국의 서사민요의 장르를 논하면서 발러드와 서사민요의 유사성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

ballad의 특징이 다음과 같다면, ballad의 특징은 바로 敘事民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1)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이루는 要素들 중에서 事件이 가장 중요하다.
- (2) 노래로 불리어진다.
- (3) 內容, 文體, 意味(designation)가 民衆의이다.
- (4) 單一한 事件을 集中的으로 다룬다.
- (5) 非固定的이다.<sup>8)</sup>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하여 皮千得, 沈明鎬 兩氏는 서사민요와 포크 발러드를 비교연구하였는 바, 外形的 特性, 文體的 特性, 內面的 特性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그 相異點을 다음과 같이 통합적으로 밝히고 있다 :

서론에서 概括, 列舉했던 兩者의 共通的인 特性들이 本 研究를 通하여 다음과 같이 取捨 選擇되거나 修正되었다. (\*표는 修正 내지 取捨選擇된 곳임)

- (1) 事件과 즐거리가 있는 이야기.
- (2) 노래로 불려짐.
- \* (3) 聯으로 나뉘어 있음.
- (4) 많은 異篇을 수반.
- (5) 作者不明.
- (6) 律文.
- (7) 形態, 文體, 內容이 간략.
- (8) 單一한 事件이나 事態를 集中的, 劇的으로 描寫.
- (9) 反復法이 현저하며 그 用法이 同-한.
- (10) 主題는 日常的이고 現實的.
- (11) 慣用的인 表現이 현저.
- (12) 日常生活과 밀접히 관련된 語彙.
- (13) 作者나 唱者의 立場에서 非個性的.
- \* (14) 運命論的인 思想이 깃들어 있음.
- (15) 人間의 情(喜怒哀樂—Essential Passions)에 根底를 두고 있음.

그리고 ballad와 敘事民謠의 差異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事項이 比較研究 後에 存續하게

8) 조동일, 「서사민요연구」(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p. 51.

되었다.

- (1) 敘事民謠의 人物은 庶民임에 比하여 ballad의 人物은 封建社會의 各階層에서 動員되고 있음.
- (2) 敘事民謠의 主題는 家庭生活 中心임에 比하여 ballad의 그것은 對人關係 및 社會的 活動에서 由來되고 있음.
- (3) 敘事民謠에는 一般的으로 愁心과 諦念의 情緒가 支配的인데 反하여 ballad에는 無慈悲하고 잔인한 感情의 露出이 많음.
- (4) 敘事民謠에는 被動的, 消極的, 事實的인데 反하여 ballad는 能動的, 積極的, 浪漫的임.<sup>9)</sup>

이와같은 서사민요와 포크벨러드의 相異點 지적에 이어 皮·沈 兩氏가 한국의 서사민요도 포크 벨러드와 마찬가지로 分聯體임을 주장하였는 바 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目的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제II장에서는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기존 主題分類의 對比, 登場人物의 對比, 장르개념에 따른 對比 등을 통하여 서사민요의 개념이 벨러드의 개념에 비해 狹義的임을 밝혀 양자의 對比研究時 서사민요의 개념이 擴張되어야 함을 보이려고 한다. 둘째, 제III장에서는 서사민요와 벨러드와 文學의 特性을 고찰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兩者가 寫實主義文學의 源流로서 悲劇性과 諧謔性이 탁월한 社會批判的 文學 장르임을 밝히려 한다. 이와같이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對比概念의 定立과 文學的 特性의 把握을 통하여 兩者의 主題分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IV장과 제V장에서는 서사민요와 벨러드를 前章의 원칙에 입각하여 具體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對比概念의 設定

### 1. 主題分類의 對比

서사민요와 벨러드를 對比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概念이 設定될 必要가 있다. 따라서 첫번째로 벨러드의 主題에 따른 分類法과 서사민요의 分類法을 살펴보고자 한다. Albert E. Friedmann은 *Folk Ballad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에서 다음의 15가지로 벨러드를 분류하고 있다: I. 超自然的인 벨러드, II. 宗教的인 벨러드, III. 浪漫的인 悲劇, IV. 사랑과 情感의 벨러드, V. 牧歌的인 벨러드, VI. 家內 悲劇, VII. 社會犯罪 벨러드, VIII. 犯罪者의 訣別 벨러드, IX. 스코틀랜드 邊境 벨러드, X. 歷史的 벨러드, XI. 偶發事故와 災難의 벨러드, XII. 犯罪者, 海賊, 惡漢 및 英雄 벨러드, XIII. 水夫와 伐木人의 노래, XIV. 카우보이와 開拓地의 벨러드, XV. 유우머.<sup>10)</sup>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주제분류를 시도하였는 바 Hodgart의 분류는 매우 유익하다:

9) 피천득·심명호, “英美의 FOLK BALLAD와 韓國敘事民謠의 比較研究,” 『研究論叢 2』(서울大學校 교육회, 1972), pp. 224~25.

10) Albert E. Friedmann(ed.), *The Penguin Book of Folk Ballad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New York: The Viking Press, Inc., 1956), v~viii.

1. Ballads belonging to the common stock of international folksong :
  - (a) Ballads of magic
  - (b) Romantic and tragic ballads
2. Ballads from the repertoire of late medieval minstrelsy
3. Ballads of yeoman minstrelsy
4. Historical ballads :
  - (a) Fully historical, dealing with real national events
  - (b) Semihistorical, dealing more vaguely with minor and local events
5. Comic songs<sup>11)</sup>

한편 한국의 서사민요를 연구한 皮·沈 兩氏는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에서 설정한 총 173편(14개 유형)의 서사민요에다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에서 뽑은 45편을 추가하여 이를 한국의 서사민요라고 하였다. 이를 小題目別로 묶으면 다음과 같다 : A. 시집살이, B. 우리선비, C. 진주낭군, D. 첩의집에, E. 부모죽은, F. 삼촌집에, G. 이내 방에, H. 한번가도, I. 신부죽은, J. 이행실이, K. 큰쾌자를, L. 주은댕기, M. 생각라지, N. 옥단춘아(이상 14가지 유형은 대부분이 주제별로 부면 시집살이謠와 相思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 ~ (3) 妾謠, (4) 男便謠, (5) ~ (18) 시집살이謠, (19) ~ (20) 相思謠, (21) 怨情謠, (22) 痴情謠, (23) 快子노래, (24) ~ (25) 댕기노래, (26) 주머니노래, (27) 不貞謠, (28) 再婚謠, (29) 배좌수딸謠, (30) 孽婦謠, (31) 義岩謠, (32) ~ (35) 變母謠, (36) ~ (37) 繼母謠, (38) 강실도령謠, (39) ~ (40) 李先達만딸謠, (41) ~ (42) 처자과부謠, (43) 總角호래비謠, (44) 願嫁謠, (45) 婚姻謠 等이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엄밀한 의미에서 主題別 分類라고 할 수 없다. 주제별 분류와 소재별 분류가 혼용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의 서사민요를 Friedmann의 벨러드 분류법에 따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 유형A(21개) ‘시집살이’ : III. ‘낭만적 비극’
- 유형B( 9개) ‘우리선비’ : IV. ‘사랑과 情感’
- 유형C(11개) ‘진주낭군’ : IV. ‘사랑과 情感’
- 유형D( 6개) ‘첩의집에’ : IV. ‘사랑과 情感’
- 유형E( 7개) ‘부모죽은’ : IV. ‘사랑과 情感’
- 유형F(16개) ‘삼촌집에’ : IV. ‘사랑과 情感’
- 유형G(32개) ‘이내방에’ : V. ‘牧歌的 벨러드’ 또는 IV. ‘사랑과 情感’
- 유형H( 2개) ‘한번가도’ : IV. 사랑과 情感’
- 유형I( 6개) ‘신부죽은’ : IV. ‘사랑과 情感’
- 유형J( 5개) ‘이행실이’ : IV. ‘사랑과 情感’
- 유형K(19개) ‘큰쾌자를’ : V. ‘牧歌的 벨러드’ 또는 IV. ‘사랑과 情感’
- 유형L( 5개) ‘주은 댕기’ : V. ‘牧歌的 벨러드’
- 유형M(22개) ‘생각라지’ : IV. ‘사랑과 情感’
- 유형N(10개) ‘옥단춘아’ : III. ‘낭만적 비극’

11) M. J. C. Hodgart, *The Ballads*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2), p. 14.

12) 皮·沈, *op. cit.*, pp. 228~29.



그리고 皮·沈 兩氏가 추가한 45편도 대부분이 ‘낭만적 비극’, ‘사랑과 정감’ 그리고 ‘목가적 벨러드’의 세 부류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서사민요를 Hodgart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대부분이 1. (b)의 낭만적·비극적 벨러드에 相應하며 극히 일부가 5. 익살謠에 해당된다.

이와같은 비교분석에서 보듯이 Friedmann은 15가지의 벨러드가 있다고 보았으나 한국의 서사민요는 ‘낭만적 비극’, ‘사랑과 정감의 벨러드’, ‘목가적 벨러드’, ‘유우머’의 4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서사민요의 범주를 지극히 制限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는 反證이 된다.<sup>13)</sup> 한국의 서사장르 중에서도 超自然的이거나 宗教的인 서사巫歌가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Hodgart의 분류중에서 1. (a) Ballads of magic에 상응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존 학자들이 분류한 한국의 서사민요의 범주중에는 歷史的인 背景을 갖는 민요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政治와 歷史를 배경으로 하는 노래를 謠라고 하였고 이것이 童謠로 전환된 것을 諷笑謠라고 하였다.<sup>14)</sup> 따라서 漢譯되기 이전의 謠와 동요로서 풍소요 중에 서사민요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상에서 主題分類法에 따라 한국의 서사민요와 영미의 벨러드를 對比하였는 바 主題面에서 서사민요는 超自然的인 敘事巫歌와 宗教的인 信仰性謠(불교요 및 민간신앙요) 그리고 歷史的인 謠와 諷笑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만 서사무가, 신앙성요, 謠 및 풍소요 중에서 外形的, 文體的 特性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서사민요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2. 登場人物의 對比

本節에서는 前節의 主題分類法의 對比研究에 이어 서사민요와 벨러드에 登場하는 人物들의 身分 및 性格의 對比를 통하여 양 개념의 범주 확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兩者의 製作者, 唱者 및 전승자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작품 내의 등장인물층의 대비에 중점을 두려 한다.

조동일은 「서사민요연구」의 ‘장르論’에서 서사민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

- A. 고된 시집살이를 참고 견디어야 하나 견딜 수 없는 主人公 女人, 主人公에 대해 포악하게 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 시집가족, 主人公에 대해 보통 동정적이나 무력한 남편, 딸을 잊지 못해 하는 친정부모,
- B. 정성들여 길쌈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충실한 女人,
- C. 남편의 애정을 苦待하는 女人, 기대를 배반하는 남편, 傍觀的인 시어머니, 그리고 妾,
- D. 남편에게 버림받고 고민하는 主人公 女人, 분노에 찬 主人公에 대해 알미울 정도로 다정하게 구는 妾,
- E. 시집살이 하면서 친정부모를 그리워하는 主人公 女人, 主人公에 대해 심술궂게 구는 시부모와 오빠들, 또는 主人公에게 동정적인 남편과 세째 오빠,
- F. 부모를 여의고 고생스럽게 사는 主人公 少年 또는 少女, 主人公을 구박하는 三叔과 叔母,

13) 기존의 서사민요 개념은 다음의 논문에서 주장하는 “True Love” Ballad에 해당한다: Judith W. Turner, “A Morphology of “True Love” Ballad,”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5: 21-31 (Jan-Mar., 1972).

14) 정동화, *op. cit.*, p. 285.

- G. 지나가는 총각을 유혹하는 이사원네 만말애기라는 대담한 처녀. 이를 거절하다 고난에 처하고, 다시 처녀를 유혹하는 男子. 그리고 이 소동 속에서 피해자가 되는 그의 부인.
- H. 처녀를 사모해 찾아가는 總角. 사모의 대상인 처녀.
- I. 장가 못 갈 팔자의 總角. 죽은 新婦. 新婦의 父母 또는 다른 家族.
- J. 장가 못 갈 팔자의 總角. 행실 나쁜 新婦.
- K.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다 의외의 낭패를 만난 男子. 男子에 동정적인 女子.
- L. 땡기를 잃어 낭패를 당한 처녀. 땡기를 주워 주는 대신에 결혼하자는 總角.
- M. 아름답고 多感한 처녀. 심술긋은 처녀의 오빠.
- N. 아내를 애절하게 못잊어 하는 男便.<sup>15)</sup>

이와같이 한국의 서사민요가 家族中心의 平凡한 庶民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英美의 벨러드는 平民 뿐만 아니라 超自然的인 성격을 가진 존재들로서 난장이 綺士, 집안 妖精, 白鳥 모습의 처녀, 人漁, 仙女, 여러 가지 유령들이 등장하며, 성경인물들이 민간신앙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벨러드의 주축을 이루는 情變謠에서는 대개 女主人公은 平民出身이지만 相對者인 男性은 貴族家門出身의 젊은이로부터 白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역사적 벨러드에서는 王 및 王妃를 비롯하여 上流層의 人物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Friedmann의 분류 VII~X I V에서 나타나듯이 平民出身으로 볼 수 있는 水夫, 伐木人, 카우보이 등이 벨러드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最下層民이라고 할 수 있는 犯法者, 海賊, 惡漢, 反社會的 英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서사민요는 主題面에서 뿐만 아니라 登場人物面에서도 벨러드에 비해 매우 制限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양자를 대비연구하기 위해서는 서사민요의 對象을 상당히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임동권의 「韓國民謠集 VI」의 한국민요분류표<sup>16)</sup>에 나타난 樵夫謠, 漁夫謠, 牧童謠 등의 男性謠와 民의 英雄들이 나타나는 說話謠, 歌辭的 民謠 中에서도 外形的, 文體的, 內面的 特性을 고려하여 서사민요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 III. 敘事장르로서의 特性

#### 1. 民과 寫實性

前章에서는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外形的, 文體的, 內面的 特性이 文化的 배경의 차이에 따라 지엽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만, 文學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한국의 서사민요의 개념이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영미의 벨러드는 다소 廣義的임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이와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기본 특성인 敘事性을 중심으로 양자의 特質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서사장르의 文學的 特性을 究明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5) 조동일, *op. cit.*, pp. 43~44.

16) 임동권, 「韓國民謠集」VI(서울 : 집문당, 1981), pp. 533~541.

서사민요나 벨러드가 공통적으로 갖는 성격을 敘事性이라 한다면,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조동일은 주장한다 :

- (1) 일정한 性格을 지닌 인물과
- (2) 일정한 秩序를 지닌 事件을 갖춘
- (3)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이 세가지는 敘事民謠를 抒情民謠나 敎述民謠와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이다.<sup>17)</sup>

위의 (1)에서 지적하는 등장인물의 문제는 II. 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벨러드의 그것에 비해 庶民性이 매우 強하다. 또한 (3)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서사민요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實在의 것이다. 조동일은 '類型論'에서 서사민요의 構造를 段落素에 의해 파악하였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苦難—解決의 試圖—挫折(解決)"로 보았다.<sup>18)</sup> 그가 분석한 14가지 유형에 나타난 各段落素의 내용은 매우 사실적이다. 각 유형을 下位類型으로 나누면 모두 19개의 유형인데 그중 12개의 결말이 좌절에서 끝난다. 좌절의 결말을 갖는다는 것은 現實의 가장 있을 법한 일이다. 社會의 基層을 이루는 民은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는 있으나 항상 이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었음은 동학운동의 선봉장인 전봉준의 패배를 예언하는 민요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수많은 좌절과 역경을 몸소 겪어온 사회계층이다. 그들은 심각한 고난을 겪음으로써 人生의 문제가 촉발되고 이와 싸우면서 經驗的인 인식이 싹튼다. 民의 經驗적 갈등은 생활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必然的인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관념적 갈등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生活에서 생겨난 필연적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부단한 도전을 하지만 民의 具體的인 활동으로는 社會構造的인 압제를 당해 낼 수 없다. 수많은 좌절이야말로 現實社會의 客觀的인 모습이다. 民의 입장에서 관념적이고 환상적인 해결자체보다도 해결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와 좌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서사민요에는 民의 寫實의 자세가 극명히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조동일이 분석한 19개 유형 중에서 해결을 시도한 것은 불과 7개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그 7개 중에서도 실현성이 희박한 正常的인 解決\*1을 시도한 것은 3개이다. 이는 대개 희망사항을 그대로 극화시킨 것으로 寫實性이 매우 약하다. 나머지 4개는 逆說的인 解決\*2을 시도하고 있는 바, 벨러드와는 비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미의 훌륭한 벨러드는 대부분 實現性은 매우 희박하지만 逆說的인 해결을 통해 그들의 現實改造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서사민요 중에서 역설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조동일의 분석은 매우 타당하다 :

非正常的이고 逆說的인 解決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A<sub>1</sub>에서 죽은 남편과 만나서 같이 살았다.

C에서 죽고나니 남편이 후회했다.

17) 조동일, *op. cit.*, p. 43.

18) *Ibid.*, pp. 88~90.

\*<sup>1,2)</sup>는 조동일의 「서사민요연구」에서 빌려온 용어로서, 前者는 대략 이 세상에서의 해피 엔딩을 의미하며, 後者는 死後에 남편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G에서 죽은 후에 저승에 가서 부부가 되었다.

모두 죽음으로써 解決이 된다는 것이며, 죽은 후의 解決이니 실제로는 不可能하거나 無意味한 解決이면서 可能的 意味를 지니기에 逆說이다. 이는 苦難을 解決하고자 하는 더욱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不可能은 可能”이라는 현실 자체의 逆說을 特徵적으로 反映한다. 文字 그대로는 현실과 어긋나지만 내포한 의미는 현실적인 것이다.<sup>19)</sup>

氏의 이러한 지적은 다음 節에서 다루게 될 Tristram Coffin의 “情緒的 核心”에 따라 서사요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사민요는 사실성이 역설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의 서사민요가 素材, 登場人物, 類型構造 등에서 철저히 庶民의 寫實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영미의 벨러드는 상당히 팬타지적인 요소가 많아 보인다. 또한 조악한 무식층의 오락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民은 現實生活의 고달픔을 벗어나기 위해 재미 있고 특이한 이야기를 그들의 想像力에 의존하여 만들어 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夢幻的이거나 現實도피적인 삶을 영위한 것은 아니었다. 社會의 基層인 그들은 觀念의 生을 살아가는 귀족들과는 달리 現實에 뿌리박고 實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 A. Bold는 벨러드의 主人公 民이 유명이나 미신을 추종하는 바보스러운 存在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

Folklore……is really an imaginative interpretation of an apparently random universe. In the absence of an established scientific order the folk had to rely on entertainment which they nevertheless took very seriously indeed. This is not to say that the ballads were treated as metaphysical gospel. The ballad folk were sufficiently rooted in the reality of their harsh rural world to accept that life rambled on without the intervention of ghosts and grotesques. They were often naive but not hopelessly credulous, totally at the mercy of superstition. For them the ballads were not an exact record of their outlook; they were, first and last, entertaining stories.<sup>20)</sup>

그들의 宗教的인 벨러드조차도 기독교적이기보다는 철저히 異教的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인물을 소재로 하여 無道德的인 世俗性, 性, 暴力 等の 主題를 다루었다고 Bold는 분석한다 :

The popular ballads are remarkably free from religious dogma, and it was only when the idiom was in decline that ecclesiastical allusions were clamped in them.……These bibles have been put there by wishful thinking, not by tradition, for the popular ballads display a frank sensuality and an amoral earthiness. Unsurprisingly the majority of them deal with sex and violence.<sup>21)</sup>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寫實主義的 詩의 특징을 살핀으로써 벨러드의 文學的 特質을 찾아내고자 한다. PEPP에 따르면 사실주의적 지관 現實을 진실하게 表現해 주는 것이다. 그 조건

19) *Ibid.*, p. 92.

20) Alan Bold, *The Ballad : The Critical Idiom Series 41* (London : Methuen & Co. Ltd., 1979), p. 43.

21) *Ibid.*, p. 45.

은 벨러드의 일반적인 조건과 거의 일치한다 :

REALISM.……Realistic poetry, at its best, is likely to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1) it will describe normal situation and average characters in ordinary settings(often with emphasis on the lower strata of society); (2) it will renounce the use of far-fetched images and metaphors; (3) it will endeavor to reproduce actual speech and tend to approximate prose rhythms.<sup>22)</sup>

또한 Vladimir Propp도 民俗作品에는 現實이 매우 정확히 묘사되고 있으며 ‘리얼리티가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벨러드를 敘事詩, 抒情詩와 비교하면서 리얼리즘의 증가라는 면에서 볼 때 벨러드는 서사시가 서정시로 넘어가는 중간에 위치하는 장르라는 평가를 하였다. 그는 서사시와 벨러드를 비교하였는 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i) 서사시에서는 먼 과거에 일어났으리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중심을 이루나, 벨러드에서는 전달자의 주변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현실(potential reality)을 다룬다.
- ii) 벨러드에서는 서사시적인 영웅 및 악한이 사라지고 평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 iii) 범죄자는 서사시적인 악한이 아니다.
- iv) 벨러드의 현실은 이상화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어두운 면이 반영되어 있다.
- v) 서사시는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영웅적 행위가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지만 벨러드의 대부분은 비극적 결말을 갖는다.
- vi) 벨러드에는 현실적 인물과 갈등이 묘사되어 있어서 서사시나 민담보다 사실주의에 접근하고 있다.
- vii) 서사시의 중대한 주제에 비해 벨러드는 일상성과 평범성이 강조되어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sup>23)</sup>

Propp는 이 논의의 결론 부분에서 口碑文學과 現實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The relation of folklore to reality may of three types:

1. Folklore, like any other art, derives from reality. Even the most fantastic images are based on reality…….
2. Independently of the intentions of its creators and performers, folklore reflects real life,……
3. A folk artist sets himself the goal of representing reality. <sup>24)</sup>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서사민요는 주제 및 소재에 있어서 철저히 사실주의적이며, 벨러드 역시 외관상의 팬타지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배경 및 본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22) Alex Preminger et al(eds.) *op. cit.*, p. 685.

23) Vladimir Propp, *Theory and History of Folklore*(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p. 30.

24) *Ibid.*, p. 38.

사실성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서민들의 人間의 情熱 특히 사랑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뱌러드와 영웅들의 국가적 또는 민족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시의 주제 비교와 관련하여 Propp는 뱌러드를 전달하는 자의 주요 관심이 生의 內面에 있음을 간파하였다 :

In the ballad crime is never atoned for, which was impossible in earlier genres. The boy's mother poisons two lovers……but suffers no punishment. The lover are buried near a church, trees grow from their graves, and their tops intertwine. This signifies the complete justification of the young lovers and condemnation of their murderer. The criminal is condemned by the performer and the listener, but retribution does not follow. The performer no longer concentrates alone on the plot and begins to display an interest in internal aspects of life.<sup>25)</sup>

이는 시의 技法上 새로운 진전으로서 뱌러드의 주제분석에 신기원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뱌러드의 주제를 분석할 경우에 인간의 心理面을 중심으로 서사구조의 발전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2. 民과 情緒의 核心

이제 民의 대변자로서의 전달자가 청자로서의 民에게 어떠한 方式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를 살피려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文體라고 할 수 있는데, 서사요의 문체는 事件의 효과적인 전개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서사민요와 뱌러드의 문체상의 특징은 이미 皮·沈의 논문에서 보았듯이 “같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므로<sup>26)</sup> 이에 대한 詳論은 피하기로 한다. 서사요에는 事件이 필수적이고 行爲가 중심이 된다. 그 행위는 대개 破局點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시간 및 장소의 背景이나 등장인물의 포시는 극히 암시적이고 우연하다. 등장인물은 아무 때나 필요시에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사건의 장소 역시 돌연하며, 어떤 연결사나 설명도 없이 장면이 바뀌어 버린다. 이것은 현대 영화의 플래시 백 및 몽타지기법과 유사하다. 사건의 진전 또한 매우 빠르다. 사건이 어떤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을 강조하거나 情緒의 效果를 高揚시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건의 서술에서 對話에로의 돌연한 이동도 아무런 설명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사건의 진행을 劇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극적인 전환방식은 사건을 생생하게 視覺化시키면서 청자의 가슴속에 깊은 감흥을 일으킨다. 이리하면 비극적인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희극적인 것은 더욱 희극적이 된다.

이렇게 敘事의 劇的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慣用的인 언어구사, 다양한 反復法 그리고 과장법, 저장법 등이 사용된다. 상투적인 표현들은 民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자의 주의를 사건에 고정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단 한번의 표현으로 충족되지 않는 情緒를 受容하기 위하여 그리고 記憶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反復法을 사용하며, 강렬한 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고 점층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점층적 반복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한 과장법은 예술적인 시에서는 억제되지만 敘事를 다루는 民의 謠에서는 의식적이며 의도적으로 사

25) *Ibid.*, p. 30.

26) 皮·沈, *op. cit.*, p. 206.

용된다. 이에 반해 저항법은 唱者가 인생을 비극적으로 본다는 간접적인 서사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敘事의 모든 기법들은 힘들고 판에 박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나마 기분 전환을 시도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한편 서사요의 사건 및 그 구성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정서에 호소하여 무엇인가를 전달 하는데 쓰이는 道具일 뿐이다. Tristram Coffin은 “統一된 行爲란 숙련된 藝術家의 表徵”이라고 말하면서 民은 “情緒의 核心”을 위하여 그 構造를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벨러드를 心理的인 面에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Propp의 입장과 그 맥을 함께 한다 :

Plotting is honored by the tradition in which the Anglo-American ballad is born, bu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upport a contention that the folk, in whose oral heritage the ballad lives, care very much at all for unified action. Their myths and their tales lack unified action, except as a vestige. Generally, the folk tend to discard plotting in favor of something one might call “impact” or “emotional core.”<sup>27)</sup>

그는 이어 서사요에 있어서 사건은 手段이며 “情緒의 核心”이 唱者가 聽者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目的임을 주장하였다.

A ballad survives among our folk because it embodies a basic human reaction to a dramatic situation. This reaction is reinterpreted by each person who renders the ballad. As an emotional core it dominates the artistic act, and melody, setting, character, and plot are used only as means by which to get it across. This core is more important to the singer and the listeners than the details of the action themselves.<sup>28)</sup>

이러한 Coffin의 주장은 매우 참신하며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文體的인 謠 特性은 비극적인 혹은 희극적인 정서적 핵심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서사요 중에는 희극적 서사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비극적 결말을 짓는다. 被支配層으로서의 民은 기본적으로 悲劇的 人生觀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생관은 民의 내적 갈등에서 유래한다. 民은 봉건적 사회에서 피지배층으로서 갖게되는 金錢的·階層的 좌절을 경험하고, 女性은 특히 家父長的 社會속에서 나름의 恨을 갖게 되며, 철저한 道德主義 社會에서 性을 비롯한 잡다한 抑壓을 民은 체험하여야만 했다. 民은 좌절과 패배를 거둬 하면서도 當代 社會 와 自身과의 갈등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승리를 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巨視的으로는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나마 성취하고 싶었고,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한 일생을 죽어서나마 인간성의 해방을 만끽하면서 지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소원성취적인 성향은 서사민요와 벨러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양자의 주제는 民의 정서적 핵심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양자의 차이는 초반부보다는 후반부에서 그 相異點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의 심리적인 측면 혹은 그들의 정서적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27) Tristram Coffin, “Mary Hamilton and the Anglo-American Ballad as an Art Form,” *The Critics and the Balla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1), p. 246.

28) *Ibid.*, p. 247.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後章에서는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사건의 결말을 중심으로 주제를 살피고자 한다. 前節의 분석과 같이 양자는 철저히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現實과 유리되어 사건이 전개되거나 夢幻적인 요소가 자주 나타나지마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이다. 民은 비극적 현실에 굴복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未來에의 希望을 가지고 부당한 현실을 개조하려 했으며 오히려 현실에서의 패배를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 IV. 敘事民謠의 主題分析

서사민요의 주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다만 조동일이 「敘事民謠 研究」의 「類型論」에서 부수적으로 서사민요의 주제에 관해 다루고 있고, 피천득·심명호는 「英美的 FOLK BALLAD와 韓國 敘事民謠의 比較研究」의 「IV. 內面的 特性」에서 서사민요의 主題的 特性을 原論的인 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 (1) 과 (3) 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 (1) 主題와 登場人物

韓國의 敘事民謠에는 貧困한 農村의 家庭生活에서 빚어지는 消極的이고 庶民的인 이야기가 무수하게 叙述되고 있다. 그 中에서도 支配的인 것은 시집살이의 苦難이다. 이러한 苦難은 勿論 衣食住를 解決하기 위한 苦難에서 보다는 시부모와 시누이 등의 학대와 소실을 든 男便 等에서 오는 精神的인 苦痛이 더 큰 것으로 描寫되고 있다.<sup>29)</sup>

##### (3) 一般的인 情緒와 環境

韓國의 敘事民謠에 깃들어 있는 一般的인 情緒는 愁心과 諦念이라 하겠다. 庶民들의 素朴한 마음이 自然이나 人爲的인 生活環境의 支配下에서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反應을 나타내는 것이 첫째, 愁心이고, 愁心이 쌓여 諦念의 感情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여진다.<sup>30)</sup>

이와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皮·沈 兩氏는 벨러드와 서사민요의 內面的 特性을 比較하였는 바, 부분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英美的 Ballad와 韓國의 敘事民謠에 깃들어 있는 內面的인 特性을 比較하면 우선 첫째로 主題에서는 兩者가 家庭生活 環境에서 빚어지는 여러 形態의 不和와 軋轢, 鬭爭과 殺生을 取扱하고 있기는 하나 Ballad에서는 보편적으로 生活環境의 범위가 넓고 事件의 內容이 悽絶하고 피비린내 나는 悲劇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比하여 敘事民謠에서는 생활환경이 家庭, 田畠, 隣近 山野에 局限되고 있으며 事件의 內容도 극히 家族的이고 衣食住의 問題를 많이 取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llad와 敘事民謠의 一般的인 情緒와 環境을 比較할 때 가장 極端的인 對照를 이루고 있는 것은 Ballad의 情緒에 깃들어 있는 잔인하고 無慈悲한 性格이라 하겠다. 敘事民謠가 一般的으로 愁心과 諦念의 情緒를 드러내고 있음에 比하여 Ballad에서는 이

29) 皮·沈, *op. cit.*, p. 211.

30) *Ibid.*, p. 217.



러한 感情을 찾아보기 힘들고,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支配的으로 나타나 있다.<sup>31)</sup>

皮·沈의 이러한 지적은 主題分析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매우 유용하다. 이는 주제의 범주를 확정하고 있고, 정서의 경향을 정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조동일의 ‘類型論’에서의 지적은 서사민요의 내용분석으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悲劇的 結末을 중심으로 서사민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前章에서 지적한 대로 서사민요는 매우 사실성이 강하며 그 결말 역시 현실적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객관성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결말이 좌절이어야 한다. 挫折로서 그 결말이 난 작품을 조동일의 段落素에 의한 유형구조 분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A<sup>2</sup>(시집살이) : 가. 시집살이를 살 수가 없었다. 나. 중이 되어 갔다. 중으로만 지낼 수 없었다. 다. 친정으로 동냥갔다. 친정에서 살 수 없었다.

B(우리선비) : 가. 남편이 없었다. 남편을 기다렸다. 나. 남편이 죽어왔다.

D<sup>1</sup>(첩의집에) : 가. 첩으로 인해 불행했다. 나. 첩의 집에 찾아갔다. 다. 되돌아 왔다.

D<sup>2</sup>(첩의집에) : 나. 첩이 있었다. 첩의 집에 찾아 갔다. 다. 되돌아 왔다.

E<sup>2</sup>(부모죽은) : 가. 어마 죽어서 가려했다. 나. 시부모가 못가게 했다. 라. 상여와 마주쳤다. 어마를 보고자 했다. 마. 오빠들의 방해. 사. 돌아섰다.

F<sup>1</sup>(삼촌집에) : 가. 부모가 일찍 죽었다. 나. 남편도 일찍 죽었다. 다. 삼촌 집에 갔다. 고생살이.

F<sup>3</sup>(삼촌집에) : 가. 부모가 일찍 죽었다. 나. 삼촌집에 갔다. 고생살이.

I(신부죽은) : 가. 장가를 못가서 가고자 했다. 나. 장가를 갔다. 다. 신부가 죽었다. 라. 되돌아 왔다.

J(이행살이) : 가. 장가를 못 갔다. 장가를 갔다. 나. 신부의 부정이 나타났다. 다. 되돌아 왔다.

L(주은댁기) : 가. 댁기를 잃었다. 나. 달라고 했다. 다. 결혼하면 주겠다고 했다.

M(생가타지) : 가. 오빠의 모함. 나. 모함에 대한 항변. 다. 죽겠다고 했다.

N(옥단춘아) : 가. 아내와 이별. 나. 보고싶어 돌아왔다. 다. 아내는 죽었다.<sup>32)</sup>

挫折로 끝나는 유형의 社會的 原因을 분석하는 것이 本章의 주된 목표이므로 각 유형이 비극적 결말의 요인을 살펴본다. A<sup>2</sup>는 시집살이라는 사회의 억압을 벗어나자는 것이 주제인데, A<sup>1</sup>에 비해 더욱 비극적이다. A<sup>1</sup>은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남편의 사랑으로 극복해 보고 싶은 희망이 담겨 있지만 A<sup>2</sup>에서는 이것마저 부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 보다 절망적이다. 父權中心의 사회에서 남편은 부인보다도 가문과 혈족에 얽매어 있으므로 이 노래의 話者로서 女性은 남편의 사랑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B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데, 女性이 고된 현실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과거급제하여 금의환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죽어 돌아온다. 이는 女性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社會的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現實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소망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남편없는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란 매우 참혹한 길이었다. 재혼이 불가능하였고 사회적으로도 갖은 제한이 뒤따랐다. 다음으로 D<sup>1</sup>과 D<sup>2</sup>는 거의 유사하다. 社會的으로 女性을 천시

31) *Ibid.*, pp. 219~22.

32) 조동일, *op. cit.*, pp. 88~89.

하고父의 飢餓를 重視한 결과로서 妾제도가 존재하였는 바 이에 代한 항거가 주된 목적이 다. 主人公 女性은 妾에게 양감을 하러 찾아 갔으나 오히려 妾을 동정하여 돌아온다. 불행의 늪에 빠진 여성은 가련한 모습을 통해서 배신한 남편에게 항거하고 있다. E<sup>2</sup>는 시부모와 오빠를 고발하는 것이 표면적인 주제이나 사회적으로 女性을 억누르는 制度에 대한 항거가 심층적인 주제이다. 주위에 우호적인 인물은 전연 없다. 시부모는 친정어머니의 장례에도 가지 못하게 하며 오빠들은 늦게 온 이유를 들어 구박한다. 이는 人間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마저도 부당하게 억누르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항거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F<sup>1</sup>의 주인공은 여성이고 F<sup>3</sup>의 주인공은 남성이나 양자가 모두 삼촌의 賤待를 고발한다. 이는 심층적으로는 부모나 남편이 없는 경우 家父長社會의 규율에 따라 가까운 父의 飢餓를 主人公에게 全權을 행사하는데 대한 不當함을 보여주고 있다.

家父長制度의 희생물로서 주인공이 드러나 있는 것은 유형 I, J, L, M, N에서도 동일하다. I유형은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장가를 가고자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下層 男性들의 생활이 잘 드러나 있고 그들은 결혼을 동경한다는 사실이 이면에 깔려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사랑 및 결혼생활까지 박탈당한 서민들의 애환이 사회적 배경을 이룬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의 도전이나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생활의 동경이며 최소한의 권익에 대한 성취기대일 뿐이다. J는 결혼의 찬미보다는 신부의 不貞한 행실에 대한 해학적 묘사가 주안점이 되는 것으로 보아 民은 최소한의 도덕률은 고수한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다만 I유형과 연관시켜 볼 때 장가가기 힘든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나 구실같다는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L은 결코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총각이 자기와 결혼하면 처녀가 잃은 甁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낭패이며 사건 자체적으로는 좌절이나 내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다. 다만 여성이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구혼할 수 없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에 탐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은 여성의 사랑이 오빠의 모함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노래이다. ‘그 처녀 자는 방에 숨소리도 돌일레라 / 말소리도 돌일레라 글소리도 돌일레라<sup>33)</sup>’는 오빠의 모함이다. 항상 정조와 순결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았던 여성이 남도 아닌 오빠의 모함에 분노하여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이 노래의 배경에는 家父長社會의 엄한 도덕률에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희생되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N은 부부의 강렬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아내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있다. 옥단춘과 잠시 이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때문이며, 이는 부모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다. 떠나기 아쉬워 몇 번이나 되돌아 오다가 결국은 떠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강렬한 사랑을 예증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노래의 唱者와 聽者의 “情緒의 核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구구절절 옥단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거를 해 가지고 돌아와 그동안 고생한 여성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하였는데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으니 더욱 죄책감이 앞서고 애통한 것이다. 이는 社會的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과거에만 집착하여야 하는 사회제도 속에서 여성이 그 희생양으로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서사민요의 주제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은 挫折의 社會的 의미를 파악해 내는 것이었다. 이를 조동일은 심리적으로 해석하였는 바, 매우 타당하다 :

33) *Ibid.*, p. 351.

“挫折은 解決이다”라는 逆說은 挫折을 극복하고 苦難을 해결하자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現實의 發展 法則을 藝術적으로 反映한 것이기에 객관적·타당성을 지니고 강한 감동을 주며, 진실의 의미를 지닌다. 실제 생활에서 苦難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수히 실패한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에 해결의 길이 발견되고, 해결은 가능하게 되고, 가능한 길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힘이 생기며, 결국 해결에 이르게 된다. 現實을 微視적으로 인식하면 挫折일 뿐이지만 巨視적으로 인식하면 挫折이 곧 解決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挫折이 곧 解決이라는 데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곡절이 있어야 하나, 藝術作品은 실제 생활의 경험을 巨視적으로 集約해 特徵적인 表現을 할 수 있다.<sup>34)</sup>

조동일이 분류한 19개 하위유형 중에 좌절단계에서 끝난 12개 이외에 解決단계에 이른 것은 7개이다. 그 중에서도 죽음 이전에 고난이 해결된 3개는 ‘正常的인 解決’이라고 보는데 이는 해피 엔딩의 서사민요이다. 영미의 벨러드에서도 해피 엔딩을 갖는 노래가 가끔 나타나는데 이는 본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아니한다.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비극적 결말을 갖는 서사요이므로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해결 단계를 서사민요 중에서 4개는 ‘逆說의인 解決’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결 방법은 영미의 벨러드에 빈번히 나타나는 rose-and-briar식의 해결방법과 흡사하다. 역설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들이 정상적인 해결을 시도한 작품들보다 文學적으로 더욱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더욱 처절한 좌절을 겪고 나서 획득되는 해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원인이 되는 苦難도 훨씬 더 사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개 유형 중에서 역설적인 해결을 갖는 것은 A', C, G, E' 유형이다.

A'유형 중에서 A<sub>6</sub>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시댁식구들 때문에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증으로 변장을 해서 친정댁에 가서 동냥을 해온다. 시댁에 돌아와보니 시어머니, 시어머니, 신랑이 모두 죽어버렸다. 그런데 남편 묘에 가보니 무궁화꽃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늦게나마 신랑을 만나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벨러드의 rose-and-briar식의 결말과 동일한 수법이다. 예증하면 다음과 같다 :

참 바랑을 짊어지고 운데 머시기 해 가주고 그래 가주 가는데 시가 꽃애 가이끄네 다 죽어뿌고 시어마이 시아바이 다 죽어뿌고 실랑 혼차 죽어뿌디 그리 저기 시어마이 미애 가이끄네 머 능구리가 나와 앉고 저기 시아바이 미애 가이끄네 머가 나와 앉는다그도? 호랑꽃이 피고 저게 저 신랑 남편 미애 가이끄네 그래 참 꽃이 머머 무궁화 꽃이 뵈다 그다? 그래 있드란다 그래 참 그래 늦게 실랑만나 살았다 그데.

(시집살이 A<sub>6</sub>)<sup>35)</sup>

[One was buried in the high churchyard,  
The other in the choir;  
On one there grew a red rose bush,  
On the other there grew brier.

34) *Ibid.*, pp. 91~92.

35) *Ibid.*, p. 200.

They grew and they grew to the high steeple top,  
Till they could grow no higher;  
And there they locked in a true-lover's knot,  
For true lovers to admire.]<sup>36)</sup>

(Barbara Allen C)

Lord Thomas was buried without kirk-wa,  
Fair Annet within the quiere,  
And o'the tane thair grew a birk,  
The other a bonny briere,

And ay they grew, and ay they threw,  
As they wad faine be neare ;  
And by this ye may ken right weil  
They were twa luvvers deare.<sup>37)</sup>

(Lord Thomas and Fair Annet)

이러한 결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라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나타낸다. 일회적으로 보면 사랑은 실패했지만 唱者와 聽者의 “정서적 핵심”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民은 그들의 정서를 다음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미시적으로는 시부모에 대한 항거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대한 항거이며 인간성의 해방을 노래한 것이다.

C(진주낭군)유형 중에서 C<sub>1</sub>은 시집살이·삼년을 살고 난 여성이 본처를 몰라보고 기생첩을 끼고 노는 남편에 항거하여 목을 매어 죽는 비극적 이야기이다. 부인이 죽은 위에야 남편은 후회한다. 비극의 직접적인 동기는 남편의 무정한 행동이다.

구름같은 말을 타고 하늘걸은 갖을씨고 못본체로 지나가네  
.....

건너방에 건너가니 사랑문을 열고나보니  
오색가지 안주를놓고 기생첩을 옆에찌고 회회낙낙 하는구나<sup>38)</sup>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삼년을 살고나니, 가난하던 집이 비교적 형편이 나아졌을 것이다. 먹고 살만하니 남편은 외도를 시작한 것이다. 부인은 남편 만나보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제도 속에서 질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다. 결국 여주인공은 절망하고, 자학하여 죽고 만다. 여성은 순진무구한 존재이다. 남편도 나중에는 ‘첩에야 정은 삼년이고, 본처정은 백년이라<sup>39)</sup>’라고 말하면서 뒤우치고 있다. 이 말은 남편이 세상사의 흐름에 별 생각없이 따라갔다

36) Albert B. Friedmann, *op. cit.*, p. 94.

37) *Ibid.*, pp. 87~88.

38) 조동일, *op. cit.*, pp. 226~27.

39) *Ibid.*, p. 227.

는 의미이다. 주인공 여성은 시대의 희생양이고 남성은 시대의 부차적인 희생물이다. 아무 죄없고 흠없는 여주인공의 죽음은 비극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 서사민요는 귀족주의적인 비극의 개념을 서민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다. 그리이스식 비극의 원인이 운명이나 신의 뜻 등의 관념적임에 비하여 서사요의 비극의 원인은 실제적이고 對社會的이다. 民은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고발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성의 회복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유형은 사랑의 갈등을 주제로 하면서도 여성의 대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

- 가. 처녀가 총각을 유혹했다.
- 나. 총각이 거절했다.
- 다. 처녀는 총각이 죽으라고 저주했다.
- 라. 저주대로 죽어서 총각이 죽었다.
- 마. 시집가는 길에 총각의 무덤 옆을 지나다가, 처녀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죽었다.
- 바. 저승에서 처녀와 총각은 부부가 되었다.<sup>40)</sup>

그리고 이 노래에서는 청춘남녀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인이 사회제도적인 것은 아니다. 총각의 거절이 신분상 또는 도덕상의 이유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내적 갈등이 사건을 전개시킨다는 점에서 현대적 감각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노래가 현대문학에 포함될 수 없음은 그 결론부의 환상성이다. 결론부는 현실세계의 차원을 뛰어 넘어 저승세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봉건사회체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대해 조동일은 매우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 :

사랑을 不道德視하는 모든 封建的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平民女性들은 자유로운 사랑, 자유로운 삶을 지켜왔고, 주장해 왔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儒敎의 道德律에 의해 조금도 歪曲되지 않은 자유로운 人間像을 보여주며 人間的인 것에 대한 강렬한 肯定이라는 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sup>41)</sup>

끝으로 역설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작품으로는 E<sup>1</sup>(부모죽은)으로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해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역설적인 해결이다. E<sup>1</sup>은 E<sup>2</sup>유형과 다르게 우호적인 인물로서 남편과 세째 오빠가 등장한다. 이들의 도움으로 죽은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다.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의 실현이 그 목표이다. 이 유형의 E<sub>3</sub>의 끝부분은 여식의 애정이 아들들보다 더욱 지극함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속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남성들보다 인간적인 온정은 여성이 더욱 강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눈에는야 좋지없고 입에는야 접시없고 맨몸으로 보내는야  
 불상하고 가련하다 우리엄마 불상하다  
 아들이야 삼형제나 있어도야 여식내만 못하구나  
 명주한필 몸에 감고 베한필을 날에덜고 그럭저럭 잘보낸다<sup>42)</sup>

40) *Ibid.*, p. 81.

41) *Ibid.*

42) *Ibid.*, p. 262.

이는 피지배층으로서의 여성이 지배층으로서의 남성에게 공격적이고 보복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중요성과 훈훈한 인간미를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동일의 분류 유형을 19개로 나누어, 그중에서 좌절로 끝나는 12개와 역설적인 해결로 끝나는 4개를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民은 사회체제의 부당한 희생물이면서도 外的인 제재에 대하여 보복이나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억울한 마음을 내적으로 삭이면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벨러드에 비해 좌절 단계에서 끝나는 12유형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역설적인 해결로 끝나는 4유형도 죽음을 당해야만 하면서도 그 분노를 외적인 것에 돌리지 않고 오직 내적인 희망과 의지를 강력히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뿐이다. A<sup>2</sup>와 B는 남편의 보호마저 받을 수 없게 된 여성이 자신의 좌절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큰 희망을 갖게 된다. D<sup>1</sup>과 D<sup>2</sup>는 자신의 경쟁자인 쫓을 오히려 동정하고 돌아오는 睿愍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I와 J에서는 결혼이 불가능한 머슴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사회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이를 공상을 통해 해학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民이 현실적인 愁心을 웃음으로 여과시키는 지혜를 가졌다고 보여진다. L은 분석한 바와 같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속박을 어떤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역으로 여성의 적극성과 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M은 오빠의 모함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여성이 더러운 진흙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이 강한 생명력을 노래함으로써 희망과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N은 죽은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된 셈이다. 자신은 온갖 고생을 다 했으면서도 남편의 과거급제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남편의 사랑이나 독차지해보고 싶은 심정을 남편의 입을 통해 애담은 가사로 전환시켜 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타주의와 인간의 정이 흠뻑 담겨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敘事民謠가 一般的으로 愁心과 諦念의 情緒를 드러내고 있다는 皮·沈의 표현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民은 서사민요를 통해 질투와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외적인 압력을 내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피지배층으로서 몸에 익힌 실용주의와 경험주의와 함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발랄한 생명주의는 불합리한 압제에 대해서도 관용과 용서를, 절망적인 상황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으며, 그들 특유의 적극성을 발전시켜 인간애를 바탕으로 계층과 성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성의 해방을 노래하고 있다.

## V: 벨러드의 主題分析

벨러드의 가락이 哀調를 띠 뿐만 아니라 主題에 있어서도 悲劇적인 것이 압도적이다. 그 중에서도 文學性이 뛰어난 작품은 대부분이 비극적이다. Judith W. Turner는 진정한 서사 연애요의 形態에 관한 논문에서 진정한 서사 연애요는 不變의 사랑, 이에 따른 事件의 엄밀, 결과로서의 不幸이라는 세 局面이 相互補完의인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순환적인 구조를 직선상에 놓고 보면 11단계로 세분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The functions to be derived from the true love ballad are as follows:

1. fact(true love)
2. matrix(lover's situation)

3. imbalance
4. action/decision of one lover
5. interaction
6. consummation(physical or spiritual)
7. misfortune or death of opposing forces
8. misfortune or death of first lover
9. threnody
10. infury or death of second lover
11. objectification/resolution

Functions seven and eight often come in reverse order, but this exchange does not alter the sequence of the other functions.<sup>43)</sup>

그는 벨러드의 構造 및 形態를 논하였지만 主題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주제분석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3. 不均衡'과 '11. 解決'단계이다. '不均衡'은 연인들에게 죽음 등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社會的 背景이다. 진실한 사랑을 가로막는 妨害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벨러드의 社會的 意味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 분석대상으로는 人氣度에 있어서 가장 앞섰다고 Bronson이 주장하는 'Barbara Allen', 'Lord Thomas and Fair Annet', 'Lord Randal', 'Lady Isabel and the Elf-Knight' 'The Gypsy Lady', 'Young Beichan', 'James Harris'('The Demon Lover' 또는 'The House Carpenter'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를 택하였다.

'Barbara Allen'은 영미사회에서 가장 인기높은 벨러드이다. Ramsay Version에 나오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 Allen은 선술집에서 Graeme으로부터 멀시당한다—Allen은 사랑을 거절한다—버림받은 남성은 죽는다—여성은 남성을 죽게한 자신을 저주하며 자살한다. 결국 두 연인을 죽게 만든 것은 Graeme의 失言때문이다. 그 失言의 배경에는 金錢的 혹은 家門上의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Allen의 자살은 자신의 연인을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벨러드의 숨은 의미는 당대의 女性경시 풍조에 대한 항거이다. 또한 미혼의 女性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부도덕한 것으로 단죄되는 社會의 性倫理에 대한 항거이다. 唱者 및 聽者의 입장에서는 社會的 制度에 의해 희생된 두 남녀에 대한 슬픔이 겹으로 나타나면서 內面的으로는 社會的 制約原因에 대한 분노가 싹튼다. 民의 이러한 抗拒가 공통적인 '情緒의 核心'이다. 民은 이야기속에서의 억울한 죽음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未來에의 希望을 품는다.

같은 관점에서 'Lord Thomas and Fair Annet'의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 : Thomas는 Annet에게 사소한 농담을 던진다—Annet는 이를 오해하여 통명스럽게 답한다—이에 화가난 Thomas는 자기 어머니에게 Annet대신 밤색신부를 맞이하겠다고 말한다—재력이 풍부한 밤색신부와 Thomas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식장에 참석한 Annet와 밤색신부가 험한 말 싸움을 한다—밤색신부가 Annet를 긴 머리핀으로 찔러 죽인다—Annet의 가슴에 흐르는 피를 보고 Thomas는 흥분하여 단도로 밤색신부를 찔러죽인다—남성은 Annet를 애타게 부르다가 자신도 가슴을 찔르고 Annet옆에 쓰러진다—두 연인은 birk와 briere가 되어 죽어서나

43) Judith W. Turner, *op. cit.*, p. 27.

마, 가까이 살게된다. 이 비극적 벨러드의 社會的 背景이 장애물로 등장한다. 친구들의 뜻에 反해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성경시풍조와 Thomas 어머니의 財物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다. 民의 '정서적 핵심'은 사회적 명예나 체면 또는 기성세대의 물질주의에 대한 항거이며, 인간성이 해방되는 자유로운 세계에로의 강한 집념이다.

다음으로 인기있는 벨러드는 'Lord Randal'이다. Friedmann은 이것을 '社會 犯罪'篇에 넣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비극적 결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다만 독약을 사용하는 잔인함이 보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랑의 비극을 노래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야기를 구성해보면 이러하다 : Randal과 그 애인은 들판에서 사냥을 한다—저녁에 식사때 국에 든 뱀장어를 먹는다—그속에는 이미 독약이 들어있음이 판명된다. 이 이야기에는 거짓된 여인과 비정한 어머니가 나타난다. 두 여성이 공모해서 Randal을 죽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비극의 사회적 배경에는 죽은 남성의 유산을 그 애인이 물려받는 사회관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물려받을 재산을 챙기는 어머니의 非情함도 눈에 띈다. 두 연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인간의 物質的인 慾望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함께 물욕에 사로잡힌 두 여인을 저주하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바로 이것이 이 노래의 사회적 메시지이다. 죄없는 순진무구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民은 내면에서 분노한다.

제4위로 인기있는 노래는 'Lady Isabel and the Elf-Knight'이다. 이 노래는 초자연적인 마법과 이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때문에 '超自然的인 벨러드'篇에 Friedmann은 실었으나 전달하려는 메시지면에서 보자면 사랑의 노래이다. 이 노래의 특징은 비극적이라기 보다는 警告的이고 訓戒的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 난장이 기사는 공주에게 마법을 걸러 綠林으로 유혹한다—富와 城을 들먹이며 숲으로 데리고 간 다음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공주는 機智를 발휘하여 난장이 기사를 죽인다. 이 노래를 진정한 사랑의 벨러드로 보기는 힘들다. 사회제도에 의한 희생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인 윤리의식의 전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民의 정서적 핵심인 善과 倫理意識의 高揚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놓고 民이 사회체제에 순응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民은 체제의 부당한 면에 항거하는 것이지 옳은 것까지도 무조건 반항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항도 순응도 모두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행위로서만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民은 의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노래는 女性에게는 物慾을 억제하라는 메시지와 젊은 男性에게는 외적인 품위에 못지 않게 내적인 욕망을 절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The Gypsy Laddie' 혹은 'Johnny Faa'는 女性的 社會的 독립성과 自由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임을 살펴본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집시들이 백작부인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Faa라는 집시에게 매혹되어 백작부인은 성을 나와 집시들과 함께 산다—이를 안 백작은 부인을 찾아 나선다—백작은 부인에게 성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부인은 이를 거절한다—부인을 탈취하려는 백작군사와 부인을 지키려는 15명의 집시들과 싸움이 벌어진다—집시들은 용감히 싸우다 죽는다. 이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民의 정서적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즉 부인을 찾아낸 백작은 부인에게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면서도 부인을 어떤 남자도 가까이 오지 못할 구석방에 숨겨 놓겠다고 말한다. 가정파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될 수 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일 수도 있으며 여성의 바람기



가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노래의 향유자가 여성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후자의 원인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백작부인은 당시 사회적인 도덕률에 의하면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不道德한 女子이다. 또한 귀족부인으로서 家門의 명예를 손상시킨 여인이다. 이 이야기의 社會的인 메시지는 暴壓的으로 여성을 구속하고 있는 家父長的 體制에 대한 抗拒이다. 부와 명예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民의 意志가 담겨있다. 부인의 행동이 결코 바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그녀의 '자신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와 같이 짐시들로부터도 自由로운 存在이다'라는 말에서도 증명이 된다.

다음으로 분석할 작품은 'Young Beichan'(혹은 'Lord Bateman')인데 이 노래는 전설상으로는 Canterbury의 성 토마스의 부친인 Gilbert Becket와 그 부인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民의 노래가 늘 그러하듯이 이 노래도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하여 民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허구적 문학작품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 런던태생인 Beichan이 외지여행을 하다가 무어인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힌다—무어인 두목의 딸인 Shusy Pye 는 감옥간수들에게 뇌물을 주어 Bicham을 자유롭게 해준다—그녀는 좋은 음식과 술로써 극진히 대접한다—두 사람은 7년 후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7년이 지나도 Bicham이 Pye에게 돌아오지 않는다—Pye는 런던의 Bicham집으로 간다—도착해 보니 Bicham은 예쁜 신부와 함께 서 있다—Pye는 용기를 내어 Bicham에게 전령을 보낸다—Bicham이 달려 나오자 Pye는 生命과 自由를 준 女人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진다—Pye는 일이 여의치 않음을 보고 Bicham에게 안경을 고한다—(聯이 바뀐다)—Bicham은 신부에게 지참금의 두 배를 지불하면서 Pye를 신부로 맞아 들인다—Pye는 Lady Jane으로 불리게 된다. 이는 해피엔딩의 사랑의 노래이다. 庶民 女性의 상상적인 바램이 극화되어 있다. 이 노래는 진실한 사랑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人間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民의 정서적 핵심이며 人間性 回復에의 강한 의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社會的으로는 生命과 自由가 身分이나 명예보다 더 귀중하다는 진실을 民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노래이다. 이와같이 民은 비극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희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극적 결말을 갖는 작품과는 차이는 民의 정서적 핵심인 희망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강하게 작용할 때 해피엔딩이 생겨나며, 빨리 실현되기에는 너무 장애물이 강하다고 느껴면 그 희망을 死後 또는 다음 世代에게 미룸으로써 현세의 종말을 비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民의 정서적 핵심이나 인간성 해방에의 의지가 결코 손상되지는 않는다.

끝으로 제 7위의 인기곡은 'James Harris'이다. 비극적 결말을 보이는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James Harris라는 선원과 한 女性이 결혼을 맹세한다—이 젊은 선원은 3년후에는 죽은 것으로 알려진다—젊은 여인은 다른 남성인 배묵수와 결혼한다—4년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며 두 아이를 낳는다—남편이 없는 어느 날 밤 James Harris라는 귀신이 나타나 주인 공 女性에게 자신의 부인이 될 것을 주장한다—그 여성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변명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그러나 그 귀신이 그녀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음을 알고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James와 함께 도망간다—배를 타고 가다가 James는 배를 조각내어 여성을 바다속에 빠뜨린다—James도 영원히 죽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는 여성이 희생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노래가 여성요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강한 보수성이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오랜 세월을 거쳐 개작되어 내려온 벨러드는 창자 및 청자에 의해 선택되어져 온 것이며 民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ames Harris' 역시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살고 있던 여성들의 정서적 관심이 표현되어 있다. 가정을 중심으로 좁은 행동반경속에서 살아온 이들은 산너머의 세계도 지옥과 같다는 의식이 뿌리 깊었고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은 여성을 농락, 파괴하는 존재이며 악마와 같은 존재이다. Friedmann은 이 작품을 'Lady Isabel and the Elf-Knight'와 함께 초자연적인 벨러드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등장인물의 表面的인 모습만 중시한 피상적인 관찰이다. James Harris를 유령으로 표현한 것은 서민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情緒의 核心을 나타내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또한 이 작품을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James Harris는 난파당해 죽은 줄 알았으나 살아 돌아온 선원이다. 그리고 옛 애인에 대한 배반감에 복수를 결행하고 있다. 여성도 좀 더 나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동경과 옛애인에 대한 미련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벨러드의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미혼의 여성이 사랑에 탐닉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켈비니즘적 사고방식에 대한 항거, 순수한 사랑보다도 사회적 체면이나 물질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택하려는 결혼풍조에 대한 인본주의적 반발, 인간의 생명 더우기 아들의 생명보다 물질적 욕망을 우선하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생명제일주의 제창, 1대 1의 사랑에는 과감하지만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好色的 남성에게 대한 경고, 귀족으로서 명예나 부귀영화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自由의 획득의 소중함,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과 신분·명예·물질보다는 生命과 自由의 고귀함, 물질적 풍요보다는 여성의 정조관념의 중시 등 이러한 주제들의 공통점은 當代의 사회적 제도에 대한 항거와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는 民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 VI. 結 論

한국의 敍事民謠와 英美의 벨러드의 비교연구는 양자의 균형있는 개념정의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종교적인 서사무가와 역사요의 특징을 보이는 참謠와 諷笑謠 중의 일부가 이론적으로는 서사민요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고, 지나치게 狹義의인 서사민요를 벨러드와 비교연구하기 위해서는 男性謠 가운데에서 樵夫謠, 漁夫謠, 牧童謠, 說話謠, 歌辭의 民謠 중에서 敍事的 特性을 갖는 것들을 서사민요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究明하였다. 이와같은 개념대비 위에서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文學的 特性을 寫實性和 悲劇性으로 보았다. 그러나 양자가 民의 노래로서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現實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唱者와 聽者가 情緒의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不屈의 정신과 새로운 社會의 到來에 대한 강한 執念이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기본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

첫째,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주제분석은 民의 '情緒의 核心'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둘째, 民의 '정서적 핵심'은 노래의 결말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서사민요는 벨러드에 비해 寫實性이 강한 '挫折'단계의 결말이 빈번하고 벨러드는 浪漫的인 '逆說의인 解決'이 주종을 이룬다.

셋째, 社會的인 意味에서 볼 때 양자의 주제는 儒敎的인 혹은 권비니즘적인 道德律을 根幹으로 하는 封建的·家夫長的 社會體制에 대한 抗拒이다.

넷째, 文學的으로 볼 때,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民은 현실의 不當함과 不義를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를 文學的으로 승화시켜 궁극적으로는 階層과 性을 超越하여 人間性的인 回復 및 解放이라는 원대한 主題를 다루고 있다.

다섯째, 小主題로 나누어보자면, 서사민요와 벨러드의 民은 觀念적인 思考가 아닌 經驗的이고 實用的인 行動方式을, 物質萬能主義가 아닌 生命第一主義를, 報復과 暗鬪가 아닌 寬容과 容恕를, 身分과 名譽 中心이 아닌 人間中心의 사랑을, 快樂的이고 道具的인 性이 아닌 健康하고 사랑이 目的인 性을, 抑壓과 支配가 아닌 自由와 平等을 주장함으로써 人本主義的인 世界觀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의 一般的인 情緒도 消極的이고 敗北主義的인 諦念과 憂愁 대신에 積極的이고 집요한 強靱함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民의 '情緒的 核心'을 보여주는 서사민요와 벨러드는 近代 寫實主義文學의 한 源流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社會批判的 性格과 表現의 諧謔性은 民의 文學이 近代國民文學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에 귀중한 遺産이 되었다고 본다.

## I . TEXT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I ~ VI, 서울 : 集文堂, 1981.

趙東一 著, 「敘事民謠研究」增補版,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Friedmann, Albert B.(ed.). *The Penguin Book of Folk Ballad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New York : The Viking Press, Inc.,1956.

## II . BIBLIOGRAPHY

### <국내논문>

김부현, 「한국 민요문학론」, 서울 : 集文堂, 1987.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서울 : 二友出版社, 1980.

\_\_\_\_\_, 「韓國婦謠研究」, 서울 : 集文堂, 1982.

張德順 外 三人, 「口碑文學概說」, 서울 : 一潮閣, 1971.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서울 : 一潮閣, 1981.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增補版,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최길·김성경 편, 「민요의 연구」, 서울 : 정음사, 1984.

최철부·심명호, “英美의 FOLK BALLAD와 韓國敘事民謠의 比較研究”, 「研究論叢 2」, 서울대학교 教育會, 1972.

### <국의 문헌>

Ben-Amos, Dan(ed.). *Folklore Genre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6.

Bluestein, Gene. *The Voice of the Folk*.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es Press, 1972.

Bold, Alan. *The Ballad : The Critical Idiom Series 41*. London : Methuen & Co. Ltd.,1979.

Buchan, David. *The Ballad and the Folk*.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Ltd.,1972.

Coffin, Tristram P. “Mary Hamilton and the Angle-American Ballad as an Art Form”, *The Critics*

- and the Ballad*, eds. MacEdward Leach and Tristram P. Coffi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1.
- Hodgart, M. J. C. *The Ballad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2.
- Karpeles, Maud. *An Introduction to English Folk So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Preminger, Alex et al(eds.) "Ballad," "Folksong," "Realism,"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enlarge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Propp, Vladimir. *Theory and History of Folklore*, trans. Ariadna Y. Martin and Richard P. Martin.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Turner, Judith W. "A Morphology of the "True Love" Ballad,"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5: 21-31(Jan.-Mar.,1972).
- Wilgus, D. K. *Anglo-American Folksong Scholarship Since 1898*.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59.